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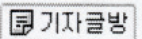
September 29, 2006

한겨레
THE HANKYOREH

“북, 핵 포기면 동북아은행 설립해 지원”

독일방문 박근혜 전 대표 아데나워재단 연설

[한겨레]

→ 성연철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8일(한국시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천영우 “북, 외교적해결 원하면 이 기회 놓치면 안돼”

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에서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관련해 “한국, 미국 등 6자 회담 당사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세계은행(IBRD) 등이 공동으로 50억달러를 출자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 3성 등 동북아 지역 개발에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이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런 구상은 지난해 3월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설 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언급한 ‘대담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대선 예비주자로서 대북정책을 선점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 뒤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해 가길 희망한다”며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 안보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를 동북아 안보·경제 공동체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아데나워재단 연설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총리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고, 메르켈 총리는 연담 마지막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느냐, 성공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September 29, 2006**한겨레**
THE HANKYOREH

Übersetzung

“Wenn Nordkorea seine Atomwaffen aufgibt, wird die Gründung einer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unterstützt.“

- Park Geun-hye bei einer Red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

Park Geun-hye sprach am 28. September in Deutschland von der Notwendigkeit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zu gründen, wenn Nordkorea seine Atomwaffen vernichte.

Dies äußerte sie bei einer Red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zu dem Thema „Deutschlands und Koreas gemeinsame Zukunft“ und verwies dabei darauf, dass Nordkorea ein realistischer und konkreter Anreiz geboten werden müsse, um auf seine Atomwaffen zu verzichten. Im Vorfeld traf sie bereits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zu gemeinsamen Gesprächen.